

장기전략리서치부
미래산업팀

뉴스클리핑

분야	내용
부동산	<p>3년새 두배 '경중' 부동산 사모펀드 (머니투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투협이 23일 발표한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46조6,649억원으로 3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 •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인의 부동산 직접투자가 어려워지며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수요 증가 예상
인프라	<p>한국전력,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확대 나서 (매일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은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 전기버스 충전사업 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버스 15대를 도입하고 급속충전기 13기를 구축할 예정
원자재	<p>원자재 펀드로 쏠리는 눈...금 은에 니켈까지 재조명 (헤럴드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에 이어 니켈과 구리 가격까지 오르며 관련 ETF와 일반 펀드도 상승세 흐름 • 글로벌 ETF의 금과 은 보유량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익률도 동반 상승
인수합병	<p>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기업 ARM 인수 검토 (Nvidia expresses interest in SoftBank's chip company Arm Holdings, Reut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 소유의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인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 애플도 ARM 인수가 가능한 후보 기업 중 하나로 거론
기타	<p>빌 애크먼 SPAC, 상장 첫날 9% 상승 (Bill Ackman's blank-check company pops 9% in its trading debut, Business Insi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2일 40억 달러를 목표로한 빌 애크먼의 SPAC이 뉴욕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 • 공모가 20달러로 상장하여 약 9% 오른 21.74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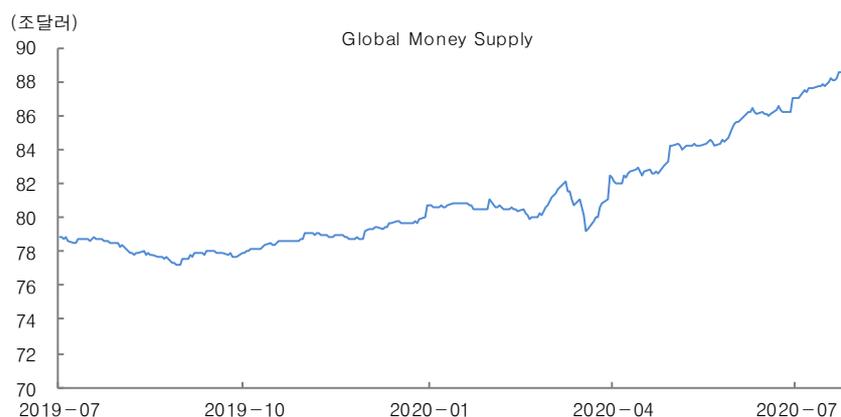
구분	BM	상승률					
		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YTD
부동산	FTSE EPRA/NAREIT Global REITs Index (TR)	1.4	2.9	4.4	-22.1	-16.3	-20.9
인프라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TR)	-0.8	4.2	6.8	-18.4	-11.1	-16.6
프라이빗 에쿼티	S&P Listed Private Equity Index (TR)	-1.2	4.6	12.3	-15.9	-3.0	-13.3
헤지펀드	Hedge Fund Research Global Hedge Fund Index	-0.3	1.3	4.9	-0.5	3.5	0.1
원자재	S&P GSCI Index (TR)	-0.7	4.6	33.2	-27.4	-30.3	-33.6

주: 2020.07.28 기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대안투자”

- 글로벌 경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세계 증시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 통화, 정책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 공급을 나타내는 블룸버그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는 7월 들어 87조 달러를 넘어 증가하고 있다.
-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4월 39.6p에서 5월 42.4p, 6월 47.8p로 2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실업률도 다소 낮아지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를 높였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11.1%로 4월 14.7%보다 소폭 하락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약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긍정적이지 않다. Refinitiv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S&P5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3분기 -23.5%, 4분기 -12.7%로 주식시장 고밸류에이션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대선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현재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과 규제 리스크가 주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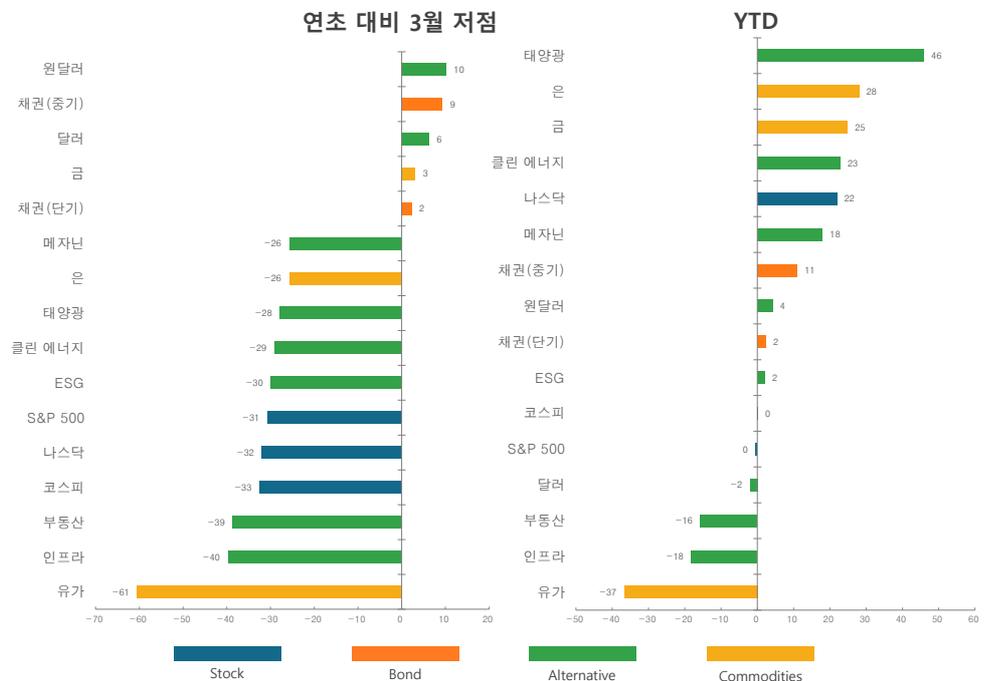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통화(M2)공급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를 경험하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 및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 미·중 무역 전쟁, 미국 대선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재차 하락할 경우를 가정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우선,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인 3월 저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YTD Return을 살펴보면 3월 저점까지 달러, 미 국채, 금이 상승했다. 특히, 금융시장 회복 이후에도 상승구간에 위치해 있어 이들 자산은 시장 하락뿐만 아니라 상승 시기에도 고려할 가장 유용한 자산이다. 그 외의 자산들의 수익률은 3월 저점까지 -26% ~ -61%까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1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락 시 시장 민감도에 따라 위험 수준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시장 붕괴 이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빛을 본 투자자산은 대체자산에 속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트렌드와 함께, 최근 글로벌 그린 뉴딜의 확산으로 관련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금속을 제외하면 태양광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의 산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가 금번 회복기 동안 아웃퍼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2020년은 에너지 분야 중 재생 에너지의 발전량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그림 2. Before Corona(BC) & After Corona(AC) YTD



주: 원달러, 달러, S&P500, 나스닥, 코스피는 지수, 금, 은, 유가는 선물 지수로 구성
 채권(중기)는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IEF), 채권(단기)는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SHY),
 메자닌은 iShares Convertible Bond ETF(CVT), 태양광은 Invesco Solar ETF(TAN), 클린 에너지는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CLN), ESG는 iShares ESG USA ETF(ESGU), 부동산은 Vanguard Real Estate Index Fund ETF(VNQ), 인프라는 iShares Global Infrastructure ETF(IGF)로 구성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은 1분기보다는 양호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반면, 그때의 상황과 다른 점은 ① 풍부한 유동성과 ② 공급 조절로 인한 유가 리스크가 감소되었다는 것, 그리고 ③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코로나 충격에 대한 1차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주요 지표 및 실적 발표에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 충격에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강력한 유동성 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시장 하락을 주도하지 않는 이상, 하락 여파는 지난 1분기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이전과 같이 시장을 하락 시키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추가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대선 리스크, 미중 관계 악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기대와는 다르게 하락장이 나타난다면 1분기 시장 붕괴 과정에서 빛을 발했던 자산들을 통한 리스크 헷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린 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대안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림 2>에서 활용한 주요 상품은 중기 채권(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IEF), 단기 채권(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 SHY), 태양광(Invesco Solar ETF, TAN), 클린에너지(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PBW)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미래산업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